



도예의 기초

매 수강신청 시기가 되면 꼭 신청하고 싶다고 손가락에 꼽히는 강좌들이 있다.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예전공이 주관하는 <도예의 기초>는 그 중 한 과목이다. 별도의 재료비를 지급해야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큰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수업이라는 입소문 때문이다. 물레를 돌리고 흙을 반죽하는 작업 끝에 탄생하는 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닐 것이다. <도예의 기초>는 흙을 언어로 삼아 내면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수업이다. 과연 어떻게 싶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날씨가 맑았던 4월의 어느 금요일, 직접 실습장을 찾았다. 52동 210호 문틈, 귀에 익은 음악이 오디오를 타고 나직하게 흘러나온다. 철썩철썩 흙 치는 소리와 덜컹덜컹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함께 묘하게 어울린다. 콧노래를 부르며 물레를 돌리는 학생은 자기의 손끝에 시선을 두고 집중한다.

이 강좌에 대한 첫인상은 진지함과 유희가 묘하게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었다. 축축한 흙 덩어리가 손에 감기는 맛은 어떨까. 군침이 절로 돈다. “어떤 걸 만들고 싶죠?”, “손가락에 힘을 약간만 줘도 모양은 이렇게 달라져요.” 임의섭 강사는 학생 개개인의 작업에서 ‘무엇’을 할 건지 묻고 ‘어떻게’ 할 건지 도와준다.



Q : 실습실 분위기가 명랑하다. 대개 강의실이라고 하면 엄정한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이곳은 학교라기보다는 좋아서 찾는 작업장 같다.

임의섭(이하 ‘임’) : (웃음) 전형적인 학문 성취를 하기보다는 함께 흙을 쳐대고 주무르니까. 엄정하다고 했는데 엄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진행을 추구한다. 그게 이 강좌의 핵심이다.

Q : 이 강좌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다.

임 : 미대는 관악캠퍼스에서 유별나게 재밌는 곳이다.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현실에 치이고 사회에 옥죄여서 경직된 것 같다. 문화적으로 공예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색깔이 약하다. 학생들은 자기 창의력을 발휘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Q : 수업의 커리큘럼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임 : 도예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니까 흙을 주무르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본다. 처음 2주, 3주 정도는 기본 기술을 가르친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시장조사를 시킨다. 시장조사라는 건 도예품을 한 번 찾아보라는 거다. 박물관을 가든, 마트를 가든, 자기 자취방에서든 발견해서 찬찬히 살펴보라고 한다. 그렇게 도예에 관해서 기본 맛을 알아가면서, 앞으로 자기가 만들 작품에 대한 방향을 좁혀나간다. 그리고 나는 컵을 하겠다, 라면그릇을 하겠다, 선물용 찻잔을 만들겠다 등을 가다잡고 한 학기 동안 해나간다.

Q : 학생 개개인이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인데,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임 : 개개인이 가지는 감수성 자체가 다르다.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봅시다!”라고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게 한다. 중요한 것은 흙을 주물러서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구상이다.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대상을 실현해내는 방법을 바로 흙을 주무르는데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나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때 그 손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등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

Q :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면 평가방식이 애매할 수도 있다.

임 :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결국에는 학점이더라. 사실은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강좌는 객관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 얼마나 신이 나서 흙을 만지고 있느냐는 눈에 보인다. 자기 안의 것을 뽑아내려고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내면에서 깊이 생각했으면 형태로 나오게 돼 있다. 방만한 과정을 거쳤으면 결과물은 그만큼 좁아진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강좌 진행방식으로 <도예의 기초>는 수강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강의평가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다. 한편 강좌 외적인 문제로 수강생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다. 실습장을 전공생들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다는 것이다. 박정안(농생대 지역시스템공학·05) 학생은 “정규 수업이 마지르면 좀 더 작업을 하고 싶어도 전공생들이 들어와 작업하기 때문에 바로 나가야 한다. 양해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허락받기 어려웠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털어 놓기도 했다. 박씨는 이어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도예의 기초>를 수강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뭘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 글 / 사진 : 서유경